



경남도 '드라이브 스루' 여행코스 13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 방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준수하고 지친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경남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은 2006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들어있는 도내 대표 드라이브 코스와 도내 각 시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드라이브 명소도 포함됐다.

창원 창포 해안길

해안도로로 깊고 푸른빛의 그림 같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진주 진양호 일주도로

진양호수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일주도로다. 저녁노을이 질 때쯤이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호수의 환상적인 풍광을 볼 수 있다.

통영 평인 노을길

한려수도의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해를 보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은 망망대해의 노을과는 다른 따뜻한 풍경을 자아낸다.

사천 비토섬가는길

별주부전의 전설이 내려오는 비토섬으로 가는 길로, 시원한 바닷바람과 눈부시게 푸른 물결, 환상적인 갯벌을 감상할 수 있다.

밀양 단장 이팝꽃 터널길

매년 5월이면 이팝나무 가로수가 장관을 이뤄 이팝꽃 터널길을 만날 수 있다.

거제 여차~홍보간 해안도로

쪽빛 바다와 대·소빙대도 등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을 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통영)평인노을길



(밀양)이팝 가로수길



(고성)동해면 한국의 아름다운길



(함양)오도재(지리산가는길)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길

한우산을 타고 도는 15km가 넘는 관광순환도로로, 5월이면 철쭉이 피어 더욱 아름답다. 한우산에는 도깨비의 전설도 있어 흥미를 자극한다.

함안 입곡저수지 드라이브길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입곡저수지를 중심으로 협곡을 이루고 있어 자연 속 색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고성 동해 해안길

리아스식 수려한 해안 경관이 절경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남해 설천 해안도로

봄철 벚꽃과 유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다. 차를 타고 가며 수려한 한려수도의 남해 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청암 하동호 산중호수길

하동댐과 함께 만들어진 인공 산중호수 하동호를 끼고 도는 드라이브 코스로, 슬로시티 하동에 어울리는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코스다.

산청 정취암 가는 길

산등성의 굽이진 길이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함양 지리산 가는 길

지리산 제일문을 향해가는 오도재와 지안재는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드라이브 코스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http://tour.gyeongnam.gov.kr)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참조하면 된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라이브 스루 여행 코스'를 추천하게 됐다"며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